

2월 19일(월) / 마19-21장

▶**내용요약:**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혼과 독신생활에 대해 권면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다. 부자 청년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물질로 인해 실족한다. 물질의 해악을 말씀하신다. 20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는 것임을 가르치신다. 이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언하신다.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메시아임을 드러내신다. 이어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등을 통해 하나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질문:**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는가?(19장)

▶**생각하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20:27)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자!

2월 22일(목) / 요1-3장

▶**내용요약:**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어 구세주로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1장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신다. 2장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번째 기적을 행하신다. 이어 성전을 청결케하신다. 3장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비밀을 가르쳐주신다. 세례요한의 사역이 소개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한다.

▶**질문:** 다음은 예수님을 보고 누가 한 말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1장)

▶**생각하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며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1:47)고 하신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나다나엘을 기억하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지칭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간사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2월 25일(주일) / 요10-12장

▶**내용요약:** 10장은 예수님이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소개하신다.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에 그 분을 따른다. 이 가르침을 듣던 중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씀에 신성모독으로 몰아 돌로 치려한다.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다. 백성들의 동요가 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할 것을 제안하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

2월 20일(화) / 마22-24장

▶**내용요약:** 22장은 예수님이 천국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음을 알려주신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다.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신다. 이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탄하며 예언하신다. 24장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 곳에 전쟁과 기근, 지진,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다.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을 것을 권면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24장)

▶**생각하기:** 우리 주위에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 종말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을 인간들은 결코 알 수 없음을 기억하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2월 23일(금) / 요4-6장

▶**내용요약:**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시고 이를 통해 복음이 그 지방에 전파된다. 이어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5장은 베테스다 연못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지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신다. 6장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오천명을 먹이고 바다위로 걷는 기적을 행하신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의 부활로 나오리라”(5장)

▶**생각하기:** 안식일에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박해를 당한다. 이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38년된 병자의 간절함을 살피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병자를 고치셨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의를 하게 된다. 12장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한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어야 열매가 있을 것을 가르치신다. 제자들이 빛되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신다.

▶**질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은 누구인가?(11장)

2월 21일(수) / 마25-28장

▶**내용요약:** 25장은 열녀네 비유를 통해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함과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선용하고 충성할 것을 말씀하신다. 26장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모습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기록한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제자임을 부인한다.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다.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신다.

▶**질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가지고 산 쌀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27장)

▶**생각하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실 때 3년간이나 동행하던 제자들은 모두 그를 떠나가 버린다. 심지어 수제자로 자처하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모든 고초를 당하셔야 했다.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2월 24일(토) / 요7-9장

▶**내용요약:**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위있게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이 놀란다. 자신을 생명의 물로 나타내신다. 8장은 음행 중에 잡혀 온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고 자신도 그 여자를 용서하신다. 자신이 세상의 빛기에 빛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을 선포하신다. 9장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지만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다.

▶**질문:**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치며 예수님은 그가 맹인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시는가?(9장)

▶**생각하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온 자신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셨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진 불신의 벽에 부딪치셔야 했다. 심지어 7장 5절에 보면 욱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세상은 예수님을 불신해도 참된 믿음을 가지는 성서인들이 되자!

▶**생각하기:**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관리들을 향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12:43)고 하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자!**